

기억과 전망

Memory & Vision

2011년 여름호 (통권 24호)

오늘의 한국사회의 현실은 민주화와 민주주의 실현의 문제가 여전히 핵심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민주적인 사회를 열망했고, 하고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의 이상과 꿈, 조직과 노선, 활동과 경험을 정리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취와 한계, 미래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기억과 전망』 통권 24호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먼저 ‘특집’은 주요한 민주화 운동 단체들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이창언은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 진영의 양대 산맥의 하나였던 이른바 민족해방운동계열의 민주대연합 전략의 발생 배경 및 역사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과 정치조직 건설논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통일전선전략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족해방계열의 전략으로 부상하여 현재까지 중심적인 운동 전략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김영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선거투쟁과 정치세력화의 문제를 노선 투쟁의 분화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등장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투쟁과 선거투쟁에 대한 심층고찰은 그것이 투쟁노선의 분화과정이었음을 규명하여, 역사 속의 그리고 현재의 노동의 정치세력화 문제에 대해 하나의 좋은 비교적 성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

최인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성격, 운동전략, 이데올로기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자는 상급단체와 단위노조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규명은 물론, 두 노총과 국가의 대면방식도 비교하여 한국노총의 협조적·실리적 조합주의와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신자유주의 투쟁노선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적으로 드러내 준다.

일반 논문들 역시 여전히 민주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 이번 호는 특히 민주화의 정신 및 사회적 변동과의 관련 문제를 다룬 논문들이 주류를 이룬다. 먼저 박수현은 독재정부 및 민주화 과정에서의 민족문제를 친일청산을 중심으로 풀어간다. 특히 그는 친일청산을 민주적 가치로 이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의 주요 현안이 되지 않았음에 주목하는 동시에, 민주화 이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접근되었음을 규명하고 있다.

최치원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이념사에 나타난 핵심 준거로서의 사회 정의에 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향후 본격적으로 재구성될 한국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지향을 탐색하는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 존엄과 품위의 문제를 포함해 불의와 정의의 담론과 가치는 민주화 과정에서 이른바 정의의 이행, 또는 이행적 정의의 문제와 관련해, 또 민주화 이후의 사회 성격과 관련해, 늦었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홍순식은 최근 들어 민주주의와 정당연구의 주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디어의 진화와 정당의 변화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정당의 인터넷 수용 태도(일방성과 쌍방성)와 정당목표(1개, 다수) 및 정당조직(개방적, 폐쇄적)을 결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정당발전의 관계에 대한 향후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오찬호는 오늘날 대학생들의 자기계발 문제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반응을 시간강사, 타임오프제, 교내 환경미화원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연대거부를 규명하고

있는 바, 이는 입학부터 취업문제에 집중하는 최근의 사회구조 및 대학 문화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의 가치 및 행동정향을 판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발견 점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기억과 증언”에서는 민주노조운동과 농민운동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양규현과 이창한이 한국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조직, 활동, 열정, 지향, 의의 그리고 바람을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의 서평(이만열: 『한국민주화운동사 전3권』)은 단순한 서평을 넘어 건국 이래의 문민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민주화운동의 핵심적 의미와 성취, 그리고 향후 논의의 필요지점을 요목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

집필에 참여해주신 모든 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특별히 금번 호를 계기로 『기억과 전망』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훌륭한 기고와 증언을 통해 한국 민주화운동과 역사에 대한 정리에 일조했음을 어느 정도 자부하면서, 이제부터는 논의의 공간을 민주주의 현실, 일상, 제도, 문화, 이론 및 비교의 지평까지 더욱 넓히려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담론과 실천, 분석과 대안제시를 더욱 정확하고 풍부하게 하는 데 참여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그를 통해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개인과 전체에 걸친 민주주의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 크다. 이러한 각오를 다지며 앞으로 더욱 새로워질 『기억과 전망』에 대한 격려와 편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기억과 전망』 역시 학문적·실천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준비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 분발할 것임을 다짐한다. *박명립*

2011년 5월 31일, 편집위원 박명립